



도시를 빛내는 컨셉, 광주에는 있습니까?



지난 2002년 문을 연 아카렌가 소코(붉은 벽돌 창고)는 고풍스런 건물과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가득찬 갤러리, 아트숍, 디자인 공방 등 개성 넘치는 콘텐츠가 어우러지면서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요코하마 항의 세관창고였던 아카렌가(오른쪽)는 지난 1990년대 요코하마 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도시의 흉물로 방치됐다. (사진 제공=요코하마 아카렌가 주식회사)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21) 아카렌가 소코

요코하마=박진현 문화선임기자



10여 년 전 요코하마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랜드마크 타워’였다. 지난 1993년 미나토미라이 21 지구 내에 문을 연 이 건물은 지상 70층(높이 295.8m)의 일본에서 두번째 높은 빌딩으로 요코하마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미나토미라이21은 요코하마 서구와 중구에 걸친 1.86km²의 수변지역으로 1989년 요코하마항 개항 13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미래형 도시 재개발지역. 닛폰마루 메모리얼파크, 퀸스 스퀘어, 코스모월드 등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들이 밀집해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오랫동안 각광을 누렸다.

하지만 근래 요코하마 관광객들 사이에 떠오른 ‘핫 플레이스’가 있다. 바로 아카렌가 소코(赤レンガ倉庫·붉은 벽돌 창고)다. 요코하마 역이나 미나토미라이역, 바사미치역에서 내린 대부분의 관광객은 아카렌가 소코로 가는 길을 찾기에 바쁘다.

지난달 초 요코하마의 바사미치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어가니 붉은 색이 선명한 3층 벽돌건물 두 동이 눈에 들어왔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20세기 초 근대건축 양식의 고풍스런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사실 요코하마에서 붉은 벽돌은 ‘근대화’의 상징이다. 메이지시대의 1911년(2호관)과 1913년(1호관)에 지어진 아카렌가는 세관창고로 한때 도쿄로 이어지는 물류의 중심 역할을 했었지만 70년대 이후로는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던 건물이다. 컨테이너 수송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창고에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났고, 밤이 되면 불량배들의 야지로 전락했다.

요코하마 시가 이 벽돌 건물들을 관광상품화하기로 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요코하마 시는 ‘100년 역사의 상징’이라는 판단 아래 1992년 이를 매입해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메이지 시대 일본 건축계의 거장인 추마키 요리나카가 설계한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 유적 지였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지는 ‘문화창고’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 또한 아카렌가 창고를 요코하마의 명물로 키우기 위해 항구 일대를 일해(臨海)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창고 주변에 원목마루를 깔고, 1872년 개설된 요코하마~도쿄간 철로를 그대로 살려 공원길을 만들었다.

아카렌가의 매력은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붉은 벽돌과 현대적인 내부시설의 조화가 빛을 독특한 아우라다. 지난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파괴된 1호관과 달리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2호관에는 의류, 액세서리, 아트숍, 도자기, 디자인,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등 100여 개의 상가가 들어서 있다. 대부



구니요시 나오키씨

분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제작한 제품들이 판매돼 일반 쇼핑몰과는 다른 감각적인 ‘작품’들이 많다. 이때문인지 평일에도 아카렌가에는 색다른 맛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로 붐볐다. 실제로 일본판 ‘돌아와요 부산항에’인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의 배경이기도 한 요코하마는 연인들이 선망하는 데이트하기 좋은

19세기 중엽 미국에 의해 개항된 이래 상업·공업중심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대화로 인한 무질서에서 예외될 수 없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요코하마는 도시의 절반이 파괴됐다. 급격한 도시화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이 도시는 ‘요코하마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길을 공공 디자인에서 찾았다.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Yokohama)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1971년 도시디자인 담당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40년 간 ‘한 우물’을 판 구니요시 나오키(65·도시정비국 자문위원·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있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디자인 방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구니요시씨 덕분에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호관의 갤러리와 공연장은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무대이자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지난 2008년 ‘제3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무대로 변신하면서 아카렌가는 일본 뿐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았다.

구니요시씨는 40년 전 요코하마가 선구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주목한 선택을 배경을 ‘생존’ 차원에서 설명했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1960년대 일본의 모든 정책은 온통 도쿄 재건에 집중됐어요. 만약 그대로 가다간 요코하마가 도쿄의 위성도시,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예요. 문화적 독립성이 사라지면 경제적 독자성도 사라지고 결국 다른 도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정책이 시작됐어요.”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던 그는 건물 하나하나보다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데 흥미를 느꼈고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창조도시 요코하마’에 매달려왔다. 요코하마시의 시대별 세밀도가 모두 그의 머릿속에 담겨 있지만 그는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2000년 이후의 ‘온리원(Only One) 도시’ 전략을 강조했다.

구니요시씨는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차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과 옛 전통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도시의 매력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는 비엔날레, 동아시아 문화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프로젝트 등 굵직한 빅 이슈들이 열리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몇몇 광주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트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역 사건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슬로건을 고민해야 합니다.”

jhpark@kwangju.co.kr



아카렌가에서 개최됐던 ‘2008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아카렌가 내부에는 의류, 디자인, 레스토랑, 카페 등 100여 개의 상가와 공방이 들어서 있다.

전쟁 복구 한창이던 1960년대

도쿄 위주에 요코하마 위기감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 돌입

40년간 일관된 디자인 정책

간섭 없는 문화행정 어우러져

옛 것·새 것 조화된 도시 완성

아카렌가가 불과 10년 만에 요코하마의 명소로 자리 잡은 데에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은 요코하마시의 문화행정이 있었다. 지난 1971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시정비국을 신설한 요코하마시는 기획자와 예술인으로 구성된 ‘요코하마 아카렌가 주식회사’에 아카렌가의 운영을 맡겼다. 또한 아카렌가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불편사항들을 수렴해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 도쿄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철의 정차역을 아카렌가 인근에 신설하는 한편 주변의 공원과 도로를 깔끔히 단장해 아카렌가의 이미지를 높였다. 그 결과 현재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요코하마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다. 사실 요코하마는 처음부터 세련된 도시는 아니었다.

현지 취재 섭외 및 협조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지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주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11월 15일(토)	당일 기차여행	11월 21일(금)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5일(금) 철원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모세의 기적 제부도·수원화성·수원행궁	당일 기차여행	부산 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무박2일 기차여행	도피안사·고석정·백마고지·제2땅굴	무박2일 기차여행	남이섬·춘천	무박2일 기차여행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08:20	광주송정역 출발	23:35	광주역 출발(광주송정역 경유)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2:09	수원역 도착 후 출발	06:00	부산 송정역 도착 후 출발	07:00	신탄리역 도착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13:00	한국판 ‘모세의기적’ 제부도 / 수원화성(연무대) / 수원행궁 관광	06:2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누리마루/이기대공원둘레길/자갈치시장 관광	07:30	백마고지/노동당사/도피안사/인보관광(제2땅굴)/고석정 관광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9:25	수원역 출발	17:22	부산역 출발	15:30	신탄리역 출발	16:18	춘천역 출발
23:04	광주송정역 도착	22:59	광주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2:14	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경노 82,000원~	성인/경노/청소년 69,000원~	소아 65,000원~	성인/경노 89,000원~	소아 85,000원~	성인/경노/청소년 85,000원~	소아 79,000원~